

徐大椿의 生涯와 著書 및 醫學理論에 관한 考察

大田大學校大學院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崔台熙·尹暢烈

I. 緒 論

韓醫學은 數千年間의 悠久한 歷史속에서 發展하여 그 固有한 理論과 治法으로 人間을 疾病으로부터 지켜주었고 現在에도 보다 나은 疾病의 治愈와 人類의 健康을 위해서 不斷한 研究와 發展을 繼續하고 있다.

韓醫學의 醫學理論과 臨床의 發展은 《黃帝內經》과 《難經》, 그리고 《傷寒雜病論》의 三書를 基礎로 하여 이루어져 이후 諸家들의 研究와 實踐의 反復을 통하여 後代로 내려오게 되었다. 《黃帝內經》은 《素問》과 《靈樞》로 構成되어 戰國時代 以前의 모든 醫學의 知識과 數千年間의 累積된 醫學經驗을 黃帝와 岐伯이 問答形式으로 總結하여 韓醫學理論의 基礎를 다져 現在까지 韓醫學의 最高의 經典으로 崇拜받고 있다.

《黃帝內經》이후에는 東漢時代의 《難經》이 있는데 《黃帝內經》중에서 論難이 되는 問題를 提起하여 說明한 著作으로 《黃帝內經》과 더불어 韓醫學理論의 基礎를 다졌다. 東漢末期에 張仲景이 《內經》理論을 根據로 하고 當時의 有效驗方을 널리 求하여 《傷寒雜病論》을 著述하여 韓醫學의 辨證施治를 體系化하고 臨床醫學의 基礎를 다져 《傷寒論》과 《金匱要略》으로 現在까지 傳해지고 있다. 따라서 韓醫學은 理論에 있어서는 《內經》과 《難經》을 中心으로 繼承發展하였고 臨床醫學에 있어서는 《傷寒論》과 《金匱要略》을 中心으로 發展을 하게 되었다.

그 후 《傷寒雜病論》과 《內經》은 많은 醫家들에 의해서 研究되고 實踐되어 오면서 理論이 더욱 體系化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理論들이 創案되었으니 자신들만의 獨特한 理論을 主張하여 韓醫學發展에 많은 貢獻을 한 醫學流派들이 形成되었다. 傷寒學派를 비롯하여 易水學派, 河間學派 및 金元四大家 등이 出現하였고 明代에는 溫補學派가 出現하여 各各의 學派들은 서로의 理論을 體系化하고 定立하여 韓醫學理論의 精密한 研究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清代에 이르러서는 考證學의 發達로 因하여 復古主義思想이 盛行하였고 實用의 學問을 重視하게 되어 臨床醫學이 크게 發展하게 되었는데 醫學界에 있어서도 尊經學派와 溫病學派의 兩大學派가 形成되었다.

이러한 時期에 影響을 받은 徐靈胎는 尊經學派의 代表的인 人物로서 尊經崇古의 復古의인

學風을 지닌 醫學家로 醫學의 源流를 重視하여 《內經》 《難經》 《神農本草經》 《傷寒論》 등의 古典을 매우 崇尚하여 깊이 研究分析하였으며 이러한 理論을 바탕으로 豊富한 臨床實踐을 가진 臨床醫로 一生동안 많은 著作을 남겼다. 특히 그는 《醫學源流論》에서 當時 醫學界의 病弊를 辛辣하게 批判을 하고 自身의 確固한 議論을 主張하여 後世에 많은 影響을 미쳤다.

이에 著者는 徐靈胎의 生涯와 醫學思想을 《徐靈胎醫書全集》을 中心으로 研究하여 얻은 바를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徐大椿의 生涯

大椿의 字는 靈胎이고 다른 이름은 大業이며 晚號는 洄溪老人으로 清代 江蘇省 吳江縣사람이다. 1693年(康熙 32年) 5月 15日에 江蘇省 吳江縣에서 出生하여 1771年(乾隆 36年) 12月 4日에 北京에서 죽었으니 享年 79歲이다¹⁾. 乾隆帝가 두 번에 걸쳐 그를 불러들일 때 그의 字를 呼稱하여 그 이후에는 字로서 世上에 이름을 알렸다. 晩年에 洄溪 畫眉泉에서 隱居하여 自號를 洄溪老人이라 하였다²⁾.

徐大椿의 先代는 浙江 嘉興縣에서 살다가 먼 조상인 徐碩에 이르러 江蘇 吳江縣으로 옮겼다. 徐의 家門은 名望이 높은 집안으로 祖父인 徐鉞는 詩文古辭에 精通하여 1679年(康熙 18年)에 鴻詞科 進士가 되어 翰林院檢討로서 《明史》를 纂修하였고, 父인 徐養浩는 水利學에 精通하여 《吳中水利志》를 聘修하였다³⁾.

이러한 環境에 影響을 받은 徐는 어려서부터 聰明過人하여 집안의 어른들은 徐가 祖業을 繼承하기를 希望하였다. 20歲에 周意庭先生을 좇아 工夫를 하며 邑庠生이 되어 과거를 준비하다가 公明利祿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 버리고 經傳과 易理를 研究하고 黃老의 書와 陰符經을 즐겨 읽었다. 袁枚선생의 《徐靈胎先生傳》에서 이르기를 “聰明過人 凡星經 地志 九宮音律 以至 舞刀奪槊 勾卒羸越之法 靡不宜究而尤長于醫.”⁴⁾라 하여 徐는 博學多才하여 天文, 曆算, 史地, 音樂, 武術, 水利등을 研究하였으며 특히 醫術에 造詣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徐靈胎가 醫學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셋째아우가 瘡病으로 苦生하게 되어 그의 아버지가 사망으로 名醫를 請하게 되어 이에 徐는 날마다 醫生들과 함께 醫學에 대하여 講論하고 또한 아우의 藥을 손수 製藥하면서 醫理가 조금씩 통하게 되었다. 그런데, 셋째 아우에 이어서 넷째

1) 裘沛然, 丁光迪,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641.

2)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中),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92.

3) 李雲, 中國人名辭典,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91. p. 731.

4) 嚴世芸, 中醫學術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 p.478.

와 다섯째 아우들이 잇달아 病으로 죽게 되었다. 이에 打擊을 받은 아버지는 너무 슬퍼한 나머지 病을 얻어 오래지 않아 世上을 떠나게 되었다. 數年 동안 집안에 病床의 일이 끊이지 않으니 이에 發憤하여 醫學을 깊이 研究하게 되었다. 집안에 所藏하던 數十種의 醫書를 朝夕으로 펼쳐보아 大意를 통하게 됨에 이에 다시 源流를 窮究히 하여 《內經》으로부터 元明의 各家의 책까지 널리 求하고 널리 取하였다⁵⁾.

醫學에 從事하면서도 여전히 醫書를 精讀하고 醫理를 研究하여 50여 년간 펼쳐 읽은 책이 千餘券이요 전체적으로 본 책이 약 萬餘券이니 이로 말미암아 醫術은 날로 發展하여 더욱 精密하게 되었다. 袁枚선생의 《徐靈胎先生傳》에서 말하기를 “每覘人疾 穿穴膏肓 能呼肺腑 與之作語 其用藥也 神施鬼沒 斬關奪隘 如周亞夫之軍從天而下.”⁶⁾라고 하였으니 그의 醫術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 醫術의 精密함은 널리 江南北에 알려졌고 마침내 清庭에까지 달하였다. 1760年(乾隆 25年)에 文華殿 大學士 蔣溥이 病이 들어 高宗이 海內의 名醫를 부를 때 刑部尙書 秦蕙田이 徐를 薦學하여 詔勅에 依해 이듬해 봄에 溥의 病을 진찰하고 不治病임을 進言하였다. 太醫院의 供奉벼슬에 任用되었으나 辭讓하고 歸鄉하였다⁷⁾. 歸鄉후 泗溪에 隱居하여 晝眉泉에 築室하여 耄學龕이라 名하고 著述에 沒頭하며 餘生을 보내다가 1771年(乾隆 36年)에 다시 부름에 스스로 體力이 衰함을 알아 아들인 徐熾를 거느리고 入京하였으나 精力이 大衰하여 3일만에 世上을 떠났다. 消息을 들은 乾隆帝가 매우 哀痛히 여겨 白金 100냥을 下賜하고 儒林郎을 贈爵하였으니 享年 79歲였다.

2. 徐大椿의 著書

徐靈胎는 清代의 著名한 醫學家로서 博學多才하여 天文, 水利, 音樂, 詩文등에 能하였고 黃老의 學과 易學을 깊이 研究하였으며 특히 醫學에 더욱 精密하여 平生동안 著述이 매우 많았다. 그 著述의 方面을 크게 3個부분으로 概括할수 있는데 첫째는 醫學著作이요, 둘째는 他人의 醫書를 批評한 著作이며, 셋째는 非醫學的인 著作이다.

醫學著作으로는 그 內容과 種類가 豊富한데 一般的으로 알려진 《徐氏醫書八種》과 《醫略六書》가 主要著作이고 他人의 醫書를 批評한 著作으로는 《評定外科正宗》과 《徐評臨証指南》이 있으며 非醫學的인 著作으로는 《泗溪道情》, 《樂府傳聲》, 《道德經注》, 《陰符經注》가 있다.

《徐氏醫書八種》은 《難經經釋》2卷, 《神農本草經百種錄》1卷, 《醫貫砭》2卷, 《醫學原流論》2卷, 《傷寒類方》1卷, 《蘭臺軌範》8卷, 《慎疾芻言》1卷, 《泗溪醫案》1卷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에서 《慎疾芻言》과 《泗溪醫案》을 제외한 6種을 별도로 《徐氏醫書六種》이라

5)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中),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p.287.

6) 姜春華, 歷代中醫各家評析,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p.252.

7)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4. p.325.

부르고 8種에 《洄溪道情》과 《評定外科正宗》을 더하여 《徐氏醫書十種》이라 부른다. 《醫略六書》는 《內經要略》1卷(《內經詮釋》이라고도 함), 《脈訣啓悟》1卷(歌訣部를 제외한 부분을 《洄溪脈學》이라고 하고 《經絡診視圖》가 첨부됨), 《傷寒約編》8卷(《舌鑑圖》가 첨부됨), 《藥性節用》1卷, 《雜病證治》9卷, 《女科指要》6卷(《女科治驗》이 첨부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著述部分이 서씨가 손수 撰한 것이 아니고 後人이 委託한 著作이라는 疑感이 提起되고 있으나 證據가 부족하여 더 나은 考證을 기다리고 있다⁸⁾⁹⁾.

(1) 《難經經釋》

徐靈胎가 《難經》을 研究한 專門書籍으로 1727年(雍正 5年)에 지어졌는데 上下 2卷으로 上卷은 一難에서 二十九難이고 下卷은 三十難에서 八十一難이 실려있다.

本書의 主要特徵은 “以經釋經”, 즉 《內經》理論을 根據하여 《難經》을 注釋하고 간간히 自己의 意見을 넣었다. 그리고, 注釋중에 《內經》의 內容에 어긋나는 《難經》에 대하여 論評하고 바로잡았으며 동시에 《難經經釋·序》에서 “此則別有師承 又不得執內經而議其可否”¹⁰⁾라 하여 단순히 《內經》으로부터 《難經》論述의 正確與否를 判斷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서의 이러한 注釋方法은 그의 尊經崇古, 溯本求源의 醫學思想을 나타낸 것이다.

(2) 《神農本草經百種錄》

徐靈胎가 《神農本草經》중에서 100種의 藥物을 選하여 各藥物의 主治와 效能등에 대해서 詳細한 注釋을 하여 用藥의 規範을 보여준 책으로 1736年(乾隆 元年)에 1卷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徐가 《神農本草經百種錄·序》에서 이르기를 “思救人必先知物 蓋氣不能違理 形不能違氣 視色別味 察聲辨奧 權輕重度長短 審形之事也 測時令 詳嗜好 分盛衰 別土宜 求氣之術也 形氣得而性以得.”¹¹⁾라 하여 藥物의 性質은 氣와 形에 의해 얻어진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丹砂를 論함에 “此因其色與質以知其效者 丹砂正赤爲純陽之色 心屬火色赤 故能入心而統治心經之証 其質重故又有鎮墜氣血之能也 凡藥之用 或取其氣 或取其味 或取其色 或取其形 或取其質 或取其性情 或取其所生之時 或取其所成之地 各以其所偏勝而即資之療疾 故能補偏救弊 調和臟腑 深求其理 可自得之.”¹²⁾라 하여 各藥物의 功效는 形·色·氣·味등의 面에서 歸結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책의 가장 큰 特徵은 藥物의 功效를 形과 色과 質과 氣와 味에 依據하여 分析하고 藥物의 主治에 대한 說明은 病證의 機轉과 聯關된 醫學理論을 結合하여 藥物의 基本作用을 詳細히 밝혔다.

8) 徐大椿醫書全集(上),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8. p.5.

9) 金東辰, 中國醫史三字經,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91. p.155.

10) 清, 徐靈胎 著, 林直清 校勘,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五洲出版社, 1969.p.1.

11) 清·徐靈胎 著, 林直清 校勘,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五洲出版社, 1969.p.5.

12) 清·徐靈胎, 上揭書. p.132.

(3) 《醫貫砭》

이 책은 1741年(乾隆 6年)에 이루어져 上下 2卷으로 構成되었다.

本書의 主要內容은 明代 趙獻可의 대표적인 著書인 《醫貫》의 學術觀點에 대하여 批評하고 駁正하여 當時에 盲目的으로 溫補의 法을 使用하는 弊端을 辛辣하게 批判하였다.

趙獻可의 《醫貫》은 薛己의 學說을 崇拜하여 命門火의 重要性을 提示하였으니 命門의 眞水 眞火를 五臟의 主流로 삼아서 太極所生의 兩儀에 譬喩하여 六味와 八味の 二處方으로 모든 病을 治療하고자 하였으나 徐가 이의 害가 큼을 알고 《醫貫》原文을 節錄하여 針砭을 놓듯이 批判을 하였으니 《醫貫砭·十二宮論》에서 趙가 “治病者不知溫養此火 而日用寒涼以直滅此火.”라 말한데에 對하여 徐가 “治法多端 原不是專用寒涼 亦不是專于補火也.”¹³⁾라고 反駁하여 溫補의 法이 盛行한 當時의 弊端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趙獻可의 說은 ‘邪說之根’이며 《醫貫》은 ‘妖書’라고 하였으며, 命門이 ‘人身之主’라는 觀點을 否定하였고 中風과 傷寒等의 治療에도 六味나 八味를 使用하는 것을 批判하였다¹⁴⁾.

(4) 《醫學源流論》

徐靈胎의 代表의인 著作으로 1757年(乾隆 22年)에 上下 2卷으로 構成된 책으로 當時의 醫學界의 弊端과 그의 確固한 醫學思想을 반영한 論書이다. 모두 7門으로 99論을 收錄하고 있는데 上卷에는 經絡臟腑(9論), 脈(3論), 病(16論), 方藥(24論)이 있고 下卷에는 治法(24論), 書論(13論), 古今(10論)으로 이루어져 있다.

經絡臟腑門은 經絡 臟腑의 生理病理와 元氣存亡과 陰陽升降등에 대하여 論述하였고, 脈門은 脈證의 輕重, 診脈決死生等을 論하였으며, 方藥門에서는 方劑의 組合과 藥物의 運用등을 論하였고, 治法門은 臨床診治時의 原則과 方法에 대하여 論하고 運氣와 人體의 關係를 重視하였고, 書論門은 古代醫書 즉 《難經》, 《傷寒論》, 《金匱要略》, 《脈經》등에 대하여 評論을 加하였으며 아울러 婦科, 瘍科, 幼科등의 特徵에 對하여 論하였으며, 古今門은 古今醫家等을 論하였다¹⁵⁾.

이 책은 그가 晩年에 著述하여 평생동안 心得體會한 그의 醫學思想과 理論體系를 集中的으로 반영하여 後世의 醫學發展에 큰 影響을 남겼다.

(5) 《傷寒類方》

徐靈胎가 《傷寒論》을 研究한 專門書籍으로 1759年(乾隆 24年)에 1卷으로 이루어 졌다. 本

13) 清·徐靈胎 著, 林直清 校勘,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五洲出版社, 1969. p.164.

14) 李 華, 「趙獻可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關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1998.p.93.

15) 裘沛然·丁光迪 主編,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643.

書에서는 《傷寒論》중의 113方を 12類로 歸分하였는데 代表的인 傷寒方を 크게 나누어 《傷寒論》의 證을 分類하여 《傷寒論》을 注釋하고 重編하였다.

그는 《傷寒論》을 “非仲景依經立方之書 乃救誤之書”¹⁶⁾라고 認識하고, 臨床時에 變症이 錯雜하므로 “無循經現症之理 當時著書 亦不過隨症立方 本無一定之次序也.”¹⁷⁾라고 하여 六經에 根據하여 나누지 않고 制方を 解肌發汗·攻邪散痞·逐水驅寒·溫中除熱等の 作用으로 12類로 나누었으니 桂枝湯類(19方), 麻黃湯類(6方), 葛根湯類(3方), 柴胡湯類(6方), 梔子湯類(7方), 承氣湯類(12方), 瀉心湯類(11方), 白虎湯類(3方), 五苓散類(4方), 四逆湯類(11方), 理中湯類(9方), 雜方(22方)등으로 構成하였다. 各各의 部類는 먼저 主方を 보여주고 다음에는 傷寒論中에 主方과 聯關된 證治의 條文을 그 아래에 列舉하여 일일이 注釋說明하고 마지막에는 同類方條文과 加減方を 덧붙였다.

이 책의 觀點이 柯琴과 서로 비슷하여 徐靈胎가 그의 뒤를 이어 方으로써 證을 나눈 代表作이나 徐는 方劑의 應用에 重點을 두어 經絡을 나누지 않고 方劑에 따라 證을 分類한데 비하여 柯는 六經을 나누어 方劑에 따라 證을 分類하였다¹⁸⁾.

또한 六經本症을 熟記하는 것을 強調하였는데 《傷寒類方·六經脈證》에서 “欲讀傷寒論 必先識六經之本症 然後論中所稱太陽陽明等病 其源流變態形色脈象 當一一備記 了然于心 然後其症之分併疑似 及用藥加減異同之故 可以曉然.”¹⁹⁾라고 하여 六經本症을 重視하였다.

以外에도 《傷寒類方·別症變症》에서 “傷寒本症之外 有別症有變症 別症者 其病與傷寒相類而實非傷寒是也 變症者 傷寒本不當有此症 或因遷延時日 或因雜藥誤投 其病變態百出是也”²⁰⁾라고 하여 藏結, 冷結, 除中, 伏氣, 晚發등 24種의 別症과 變症을 舉論하여 本症과 鑑別하도록 하였다.

(6)《蘭臺軌範》

이 책은 1764年(乾隆 29年)에 8卷으로 이루어진 책으로 徐靈胎의 臨床經驗을 總結한 著作이다. 全書가 8卷으로 總38門, 1020方を 選하여 第1卷은 通治方を 실었고, 第2~7卷은 臨床各科의 雜病을 論하였고, 第8卷은 婦人 및 小兒에 大한 證治를 分別하여 論述하였다.

各病에 대해 論함에 먼저 病原을 論述하고 다음에는 病症을 辨하고 이후에 治法을 세웠으니 《內經》, 《難經》, 《傷寒論》, 《金匱要略》을 基準으로 하고 未備한 것은 《諸病源候論》, 《千金要方》, 《外臺秘要》등의 隋와 唐의 諸書를 取하여 補充하였으며 選方은 비교적 廣範圍하게 하여 위의 書籍들 이외에도 宋代以後의 諸方書에서도 引用하였으니 “本內經以探其源 次難經及金匱傷寒論以求其治 其有未備者 則取六朝唐人方以廣其法, 自宋以後諸家及諸單方異訣

16)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卷53),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86.

17) 上揭書. p.586.

18) 裘沛然 主編, 中醫歷代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287.

19)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53卷), 大星文化社, 서울, 1995. p.630.

20) 上揭書, p.632.

擇其義有可推 識多獲效者 附焉.”²¹⁾라고 하였다.

이 책의 가장 큰 特徵은 病名을 分明하게 알고 病症과 發病原因에 대해서도 明辨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蘭臺軌範·序》에서 이르기를 “欲治病者 必先識病之名 能識病名而後求其病之所由生 知其所有生 又當辨其生之因各不同 而病狀所由異 然後考其治之之法 一病必有主方 一方必有主藥.”²²⁾라 하여 病名과 病症, 病因을 重視하였고 그리고 主方과 主藥에 대한 觀點을 提示하였다. 그리고, 治病에 湯藥만을 전용하지 않고 單方과 驗方, 鍼灸, 按摩療法등에 대해서도 妥當히 採用해야 한다고 하였다²³⁾.

後世에 많은 사람들이 本書를 너무 尊經함에 치우쳤다고 評論하나 이는 책의 內容이 崇高的이고 簡約한 特徵때문이니 실제로는 徐의 苦心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本書의 瘥門을 살펴보면 病原을 論述함에 《金匱要略》의 範疇에 벗어나지 않아 引用된 處方도 瓜蒌桂枝湯, 麻黃加獨活防風湯, 葛根湯, 大承氣湯, 桂枝加葛湯, 小續命湯등 六方이나 다만 注釋중에 說明하기를 “瘥病 乃傷寒壞症 小兒得之猶有愈者 其餘則百難療一 其實者 或有因下以得生 虛者竟無治法 金匱諸方 見效絕少.”²⁴⁾라고 하여 실제 臨床에 있어서 規範이 됨을 說明하고 있다.

(7) 《慎疾芻言》

이 책은 1767年(乾隆 32年)에 1卷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補劑, 用藥, 中風, 咳嗽, 吐血, 中暑, 痢疾, 陰症, 老人, 婦人, 小兒, 外科, 治法, 制劑, 煎藥, 服藥法, 延醫, 秘方, 詭誕, 宗傳등 19論을 收錄하였다.

主要內容은 당시의 弊端을 指摘하여 各種의 邪說을 反駁하며 詳細히 分析하며 자신의 見解를 論述한 것이다.

(8) 《洄溪醫案》

이 책의 成書年代는 確實하지 않으나 서의 門人인 金復村이 輯하였고 後學인 王士雄이 整理하여 1855年에 1卷으로 世上에 進하였다.

徐靈胎의 醫案을 專門의으로 실은 책으로 內科, 外科, 婦人科醫案 87例를 收錄하였고 55病症을 概括하였다. 醫案중에 사용된 藥들은 平凡하고 病因과 病機, 病情의 辨別이 매우 分明하여 理法을 重視하고 奇方을 崇仰하지 않는 그의 學問態度를 알 수 있다.

(9) 《醫略六書》

이 책은 1741年(乾隆 6年)에 이루어져서 全書가 32卷으로 6種의 醫書가 收錄되어 있는데 《內經要略》1卷(《內經詮釋》이라고도 함), 《脈訣啓悟》1권(歌訣部分을 《洄溪脈學》이라고

21)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 五洲出版社, 臺北, 1969.p.9.

22) 青·徐靈胎 著, 上揭書. p.8.

23) 裘沛然 丁光迪 主編, 中醫各家學說,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2. p.642.

24) 清·徐靈胎 著, 上揭書. p.115.

하고 《經絡診視圖》가 添附됨), 《傷寒約編》8卷(《舌鑑圖》가 添附됨), 《藥性節用》1卷, 《雜病證治》9卷, 《女科指要》6卷(《女科治驗》이 添附됨)으로 構成되어 있다.

本書는 醫學에 入門하는 者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그 自序에서 이르기를 “晩年來爲薪傳計 旁搜遠紹 取古人之書而重集之 節其冗 取其要 補其缺 正其偏 寒暑數更 稿凡三易 成爲六書, 名曰醫略.”이라 하였다.

① 《內經要略》

《素問》중에서 62篇을 選하여 部分的으로 經文을 절취하여 詮釋을 加한 것으로 다른 이름으로 《內經詮釋》이라고도 한다.

選한 內容은 주로 生理, 病理, 治側, 診法, 陰陽, 脈象, 經絡등을 爲主로 하였고 鍼灸와 運氣의 內容은 모두 省지 않았다. 原文을 節錄한 內容이 李中梓의 《內經要略》와 서로 비슷하나 다만 徐靈胎는 經文의 原篇을 題目으로하여 注釋하였고 이는 重要內容을 主題別로 나누어 分類하였다.

② 《脈訣啓悟》

脈學의 專門書籍으로 論部와 歌訣部가 있는데 論部만을 別도의 한 책으로 《涇溪脈學》이라 한다.

主要內容은 脈位法天地五行論, 提綱論, 因形氣以定診論, 審象論, 衝陽太谿二脈論, 脈無根兩說論등의 六論이 있고 診法은 李時珍의 《瀕湖脈學·四言學要》를 刪改하여 《內經》과 《傷寒論》중의 脈에 관한 論을 補充하여 脈學의 基礎를 論하였으며 脈의 體象은 疾脈을 포함한 28脈에 대하여 各脈의 主病, 寸關尺分部, 辨虛實, 辨兼脈, 辨兼象을 나누어 述하고 最後에는 診宗脈學으로 結하여 本脈의 體象과 相似脈을 鑑別하고 脈과 相應하는 病과 相應하지 않는 病을 들어내고 本脈의 出現意義와 豫後를 나누어 述하였다. 그리고, 大脈, 小脈, 清脈, 濁脈과 新病, 久病, 五臟, 反關, 妊娠脈等に 對하여 論하였다.

③ 《傷寒約編》

徐靈胎가 傷寒을 研究함에 있어서 柯琴을 가장 推仰하여 이르기를 “注釋者不下數百家 唯來蘇集爲最.”라고 하니 本書는 《傷寒來蘇集》을 刪改하여 이루어져 書名이 《傷寒約編》이고 本書의 首卷은 柯琴의 《六經病解》로서 하였다.

本書의 特徵은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難經·五十八難》의 “傷寒有五”의 說을 取하여 太陽篇中에 傷寒, 中風, 溫病, 濕溫, 中暑의 脈症과 治法을 分述하였고 太陽傷寒條下에 夾氣, 夾血, 夾痰, 夾食, 夾水, 夾蟲等症과 內傷傷寒, 陽虛傷寒症을 더하였다. 그래서 太陽溫病의 아래에 吳有性의 達原飲, 三消飲, 三甲散등의 處方을 取하였다. 둘째는, 《傷寒論》原文에 病證만을 말하고 治方이 없는 곳에 方藥을 補充한 것이니 “脈浮緊者 法當身疼痛 宜以汗解之 假令尺中脈遲者 不可發汗 以營氣不足血少故也.”의 條文아래에 加減建中湯을 補充하였고, “不發汗因致衄”의 條文아래에는 變化黑膏湯을 補充하였다²⁵⁾.

本書의 마지막에는 白, 黃, 灰, 黑, 紫色의 舌苔와 舌質을 說明한 《舌鑑總論》과 《舌鑑圖》를 添附하였다.

④ 《藥性節用》

本書는 常用藥物 906種을 選하여 《本草綱目》의 門類를 따라서 注釋하였고 잘 안쓰는 藥物들은 刪하여 初學入門者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⑤ 《雜病證治》

本書는 《內經》의 理致에 基本하여 病名을 定하고 臟腑를 論하며 病因과 病機를 살피고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뜻을 따라 變症을 상세히 하고 治法과 方藥을 決定하였고 唐宋元明의 著名한 醫家들의 創造的인 理論들을 廣範圍하게 取하였다.

⑥ 《女科指要》

婦人科의 諸病을 論述하였으며 體例가 《雜病證治》와 비슷하며 議論이 簡略하고 平凡하고 選方이 豊富하다.

本書의 마지막에 治驗醫案인 《女科醫案》이 添附되어 있다.

3. 徐大椿의 醫學思想

1) 學術思想의 時代背景

徐靈胎는 康熙, 雍正, 乾隆의 三朝의 時代에서 살았는데 그때 當時의 清朝의 通治는 점점 安靜이 되고 經濟는 점점 繁榮해 가고 人口는 迅速하게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知識人들은 清朝의 爲政을 원하지 않아 或者는 反清復明活動에 加擔을 하고, 或者는 儒業을 버리고 醫學에 從事하여 많은 우수한 人材들이 醫學分野에 있게 되었다. 또한, 同時에 많은 醫學家들이 戰亂을 避하여 隱居하여 醫學을 研究하고 著述에 沒頭를 하였다. 그래서 醫學의 傳播와 學術의 發展이 迅速하게 이루어 졌다.

康熙와 乾隆사이의 時期에 大家라고 일컫을 수 있는 醫家들은 傅青主, 張志聰, 柯韻伯, 高士宗, 張錫駒, 葉天士, 尤在涇, 王維德, 陳修園, 程國彭, 薛生白, 徐大椿, 吳鞠通등 數十人이다. 諸家들의 學術觀點과 學問態度, 그리고 醫學에 대한 貢獻이 各各 같지 않으나 金元以來로 各種 學說들이 여기에 와서 充分히 發揮되고 完成되었다. 그러나, 各家들간의 學術論爭이 그치지 않아 나름대로의 學術流派가 形成되었다.

清初의 醫學界에는 크게 두 部類의 學派가 있었으니, 하나는 溫病學派고 다른 하나는 尊經學派이다. 溫病學派는 劉完素의 火熱病機學說을 이어서 明代의 吳有性, 張鶴騰, 周楊俊등이 充實히 하여 쌓아온 溫病知識이 점점 豊富해져서 이미 體系가 形成되는 趨勢였다. 清代에 이르러

25)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傷寒約編, 五洲出版社, 臺北, 1969,p.23.

葉天士가 衛氣營血의 觀點을 提示하고, 薛生白이 濕熱病症을 重視하는 研究를 하고, 吳鞠通이 溫病의 三焦辨證등에 힘써 研究하고 整理하여 理論이 系統이 서고 辨證施治의 方法이 豊富해 졌다²⁶⁾. 溫病學家들이 스스로 傷寒에 대해 右翼의이라고 하나 實際는 이미 傷寒의 體系에서 벗어나 《傷寒論》과는 별도의 著作들이 나왔다. 이와 동시에 張志聰, 柯韻伯, 尤在涇, 徐大椿, 陳修園등의 醫家들은 張仲景의 《傷寒論》과 아울러 《內經》, 《難經》, 《神農本草經》등의 古典書籍을 매우 推仰하여 尊經學派를 形成하여 經文의 奧理를 研究하고 準繩으로 삼았다. 두 浮流의 學家들은 自己의 分野에 充實하였으나 서로의 分野에도 어느정도 能熟하여 溫病의 大家인 吳鞠通은 《內經》과 《傷寒論》에 대하여 자못 研究가 있었고 醫經을 推仰하는 柯韻伯이나 尤在涇등의 尊經學派도 溫病을 잘 다스리고 臨床經驗도 豊富하였다.

徐靈胎는 이러한 時代背景에 影響을 받아 다분히 復古的인 學風을 지니고 또한 매우 풍부한 臨床經驗을 갖추었으니 《醫學源流論·考試醫學論》에서 이르기를 “言必本于聖經, 治必 遵乎古法.”²⁷⁾라고 하여 그의 尊經崇古의 醫學思想을 드러냈다.

2) 學術思想의 歷史淵源

徐靈胎은 필생을 醫學에 몸담아 많은 著作을 하고 豊富한 臨床經驗으로 무수히 活人하여 當代의 名醫로 불리우고 尊經學派의 中堅人으로 醫學發展에 큰 貢獻을 하였다.

《內經》은 戰國時代 以前의 數千年간 累積된 醫學經驗을 總結하여 當時의 哲學과 自然科學, 社會科學의 理論을 結合하여 醫學理論의 基礎를 다졌다. 東漢때의 張仲景은 當時의 有效한 驗方을 博采하여 各方의 適應病症을 確立하고 아울러 《內經》理論을 歸納하여 《傷寒雜病論》을 著作하였으니 또한 臨床醫學의 基礎를 다지게 되었다. 이 《內經》과 《傷寒雜病論》은 醫學發展의 歷史上 첫 번째 突破口가 되었다. 그 이후로 數百年간 繼承하고 累積되어 《諸病源候論》, 《千金要方》, 《外臺秘要》등의 著作이 그 뒤를 이어갔다. 그 이후로 長期間의 經驗이 累積되어 오다가 金代의 劉完素가 火熱論을 創立하여 各家의 創造的인 議論과 學術的인 論爭이 持續되었다.

金元時代의 各家의 學說은 각기의 뚜렷한 特徵과 治法이 있는데 李東垣과 王好古등은 張元素의 學說을 師承하여 脾胃論을 發展시켜 補脾의 治法을 專門的으로 使用하였고 劉河間은 火熱論을 主張하여 寒涼瀉火의 法을 專用하였고 朱震亨은 劉河間의 뒤를 繼承하여 陽常有餘, 陰常不足의 醫論을 提示하여 滋陰法을 使用하였고 張從正은 祛邪安正의 治法에 精密하여 汗吐下的 攻法을 使用하였다. 위의 各家들은 모두 《內經》理論을 根據로 自身의 學說을 主張하여 《內經》의 基礎理論을 한층더 發展시켰다.

明代의 葉天士는 腎爲先天, 火能生土의 說을 提示하여 補腎의 法을 使用했고 李仲梓는 李東垣과 葉天士의 說을 合하여 先天, 後天, 命門脾土說을 完成하였고 張景岳은 陽氣는 人身의 至寶

26) 裘沛然 主編, 中醫歷代各家學說,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4. p.233.

27) 清·徐靈胎 著, 林直清 校勘, 上揭書, p.126.

라 認識하여 丹溪의 陽常有餘의 說을 反駁하였고 趙獻可는 命門陽氣를 重視하여 寒涼瀉火를 專用하는 이들에 反對하였으니 以上の 諸家들은 明代의 濫補學派를 形成하였는데 이는 金元時代에 劉完素, 朱震亨등의 寒涼의 治法을 修正하고 李東垣의 學說을 補充하여 醫學을 繼承하여 發展시킨 것이다.

清初의 醫學界는 諸說이 竝立하는 局面을 맞아 諸說을 融會하고 統一하는 過程에서 尊經學派가 出現하였다. 尊經學派는 仲景의 學問을 萬世醫學의 宗으로 삼아 習醫者들은 먼저 仲景의 책을 읽은 然後에 各家의 學說을 研究하는 것을 正道로 여겨 李仲梓의 四大家論을 反駁하여 張仲景을 醫聖이라 하고 金元の 諸家들과 같이 놓일수 없다고 認識하였다. 徐靈胎는 이러한 尊經學派의 代表人物中的 한 사람으로 그의 學術思想은 上記한 醫學史와 密接한 關係가 있으니 清庭이 尊孔讀經政策을 行하여 자연스럽게 考證學의 분위기가 盛行하여 이에 影響을 받은 徐는 醫學의 源流를 重視하여 《醫學源流論·醫學淵源論》에서 “不知神農黃帝之精義 則藥性及藏府經絡之源不明也. 于不止仲景制方之法度 則病變及施治之法不審也.”²⁸⁾라 하였고 “能熟於內經及仲景諸書 細心體認 則雖其病萬殊 其中條理井然 毫無疑似 出入變化 無有无效.”²⁹⁾라고 하여 《內經》과 《傷寒論》등의 古典을 推仰하여 理法을 세우고 諸家の 說을 博約하여 當時의 弊端을 指摘하고 辨證을 精密히 하여 醫學을 發展시켰다.

3) 學問態度와 思考方式

徐靈胎가 이룬 醫學成就是 그 嚴格한 學問態度와 學問方式, 그리고 論理的인 思考體系에서 비롯된다. 그의 가장 큰 學術特徵은 唐代以前の 醫學著作을 推崇하고 宋代以後의 醫學著作에 대해서는 매번 慎重히 살펴서 選擇하고 吸收하였다. 이는 그가 漢唐時代의 方藥과 著作은 比較的 眞實한 것이 많고 宋元以後의 것들은 主觀的인 臆測이 많다고 認識하였기 때문이다.

徐靈胎의 學問態度는 實用的인 것을 重視하였고 表面的인 無用의 說은 避하였으니 반드시 臨床經驗을 할 것이지 口舌로만 相爭하는 것을 反對하였다. 동시에 책을 읽음에 盲從하지 않았으니 前人の 議論을 반드시 몸소 實踐하여 檢證하였다. 그의 學問方法은 實踐方法과 論理的인 思考方法의 두 가지로 歸納할수 있다.

(1) 博取·精思·歷試함

徐靈胎의 學問方法은 博取·精思·歷試의 六字로 要約할수 있다.

《醫學源流論·邪說陷溺論》에서 이르기를 “凡讀書議論 必審其所以然之故 而更精思歷試 方不爲私設所誤”³⁰⁾라고 하여 學問을 함에 精思와 歷試의 重要性을 言及하였다.

博取라는 것은 資料를 收集하는 過程으로 諸家の 說을 全面的으로 繼承하는 것이고, 精思라

28) 清·徐靈胎 著, 林直清 校勘,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五洲出版社, 1969.P.125.

29) 清·徐靈胎 著, 上揭書, P.66

30) 清·徐靈胎 著, 上揭書, p.129.

는 것은 博取以後에 分類, 比較, 歸納, 演繹등을 통해 論理的인 思考로서 前人の 經驗한 精華를 끌어내는 것이며, 歷試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最後에 臨床實踐을 통하여 進行하고 檢證을 反復하는 것이다. 이러한 方法들은 閉鎖的인 單純한 思考方式과는 같지 않고 또한 直觀에 의한 盲目的인 實踐과는 같지 않은 것이다.

徐靈胎는 學問을 함에 博取, 精思의 方法으로 먼저 廣範圍하게 책을 閱覽하고 歷代 名家들의 著書를 研究하되 한편으로 치우침을 피할 것이며 各家의 長點을 吸收하며 아울러 短點을 알아서 나아가서는 融會貫通해야 한다고 認識하였다. 그래서 그는 讀書를 함에 자기의 見解를 지니고 問題를 諸氣하여 결코 大충대충 훑어보지 않고 반드시 潛心體認하여 文中의 精義를 把握하였다. 그의 많은 著名한 著作중에 《難經經釋》과 《神農本草經百種錄》등은 비록 前人の 著述을 基礎로 하였으나 새로운 觀點에서의 論述이 많았다. 그리고, 그는 一生동안 많은 勞力을 하여 當時의 病弊를 바로잡는 批評的인 論述을 하여 後學들에 稱讚을 받았다.

歷試의 方法은 그의 學術에서의 가장 큰 特徵으로 學問方法과 研究方法의 核心이 된다. 그는 理論의 正確與否는 實踐的인 檢證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였으니 그가 비록 諸家의 說을 博取하였으나 漢唐時期的 醫學을 推崇함은 漢唐時期的 醫學著作은 素朴하고 實踐的이어서 效驗을 檢證할수 있기 때문이며 宋元以後의 醫學은 精微롭지 못하고 亂雜하여 使用함에 有效한 것도 있고 效驗이 없는 것도 있기 때문이었다. 더우기 한 理論에만 偏執된 새로운 學派들은 偏執된 處方으로 萬病을 다스리려 하니 이 또한 잘못된 것으로 實踐을 통한 檢證을 重視하여 《醫學源流論·治人必考其驗否論》에서 “天下之事 惟以口舌爭而無從考其信否者 則是非難定 若夫醫 則有效驗之可徵 知之最易 而爲醫者 自審其工拙亦最易”³¹⁾라고 하였다.

그는 歷試의 方法을 理論의 正確與否를 檢證하는 尺度로 삼았고 또한 有效한 研究手段으로 活用하였다. 《醫學源流論·治人必考其驗否論》에서 “故治病之法 必宜先立醫案 指爲何病 所本何方 方中用某藥專治某症 其論說本之何書 服此藥後 于何時減去所患之何症 尙或不驗 必求所以不驗之故 而更思必效之法 或所期之效不應 僅有他效 必求其所以治他效之故 又或反增他症 或病反重 則必求所以致害之故 而自痛懲焉 更復博考醫書 期于必愈而止 若其病不能速效 或其病只可小效 或竟不可治 亦必預立醫案 明著其說 然後立方 不得冒昧施治 如此自考 自然有過必知 可以潛心好學 其道日進矣”³²⁾라고 하여 그가 臨證治病을 함에 歷試에 대한 觀點을 明確히 하였으니 基礎理論을 重視하였을 뿐만 아니라 理論과 實踐이 相互結合하는 重要性을 強調하였다.

(2) 對比分析하여 論理的인 思考를 함.

比較分析은 徐靈胎가 學問을 研究하는 方法에 있어서 매우 重要的 部分이다. 假令 《傷寒類方》은 方劑作用의 共通點을 根據로 歸納하여 12類로 나누어 다시 同類方을 比較하고 本方과 다른 部分을 分析하여 方劑의 加減變化의 規律을 研究하였다. 그는 藥物의 基本作用에 대한 把握을 重視하여 한 藥物의 主要作用을 根據로 方劑의 作用理致를 分析하였으며 一味藥物의

31) 清·徐靈胎 著, 上揭書, p.107.

32) 清·徐靈胎 著, 上揭書, p.108.

加減을 根據로 主治病症의 病機를 把握하였다.

《神農本草經百種錄》은 諸藥의 共通된 性質을 歸納하기도 하고, 或은 各藥의 特徵을 分析하기도 하며, 或은 藥物의 形色氣味를 比較하여 藥物의 作用을 分別하였으니 이러한 比較分析은 그의 研究에 중요한 方法이 되었다.

그는 論理的인 事故方法에 뛰어났으니 前人의 議論이 偏頗의이어서 論理的으로 錯誤가 있는 部分에 대하여 깊은 洞察力을 가지고 當時의 病弊에 대해 批評하고 評論하여 著名한 醫學評論家가 되었으니 그는 豊富한 臨床經驗이외에도 상당한 論理的인 思考能力을 갖추었고 그것은 그의 學問方法에 있어서 중요한 部分이 되었다.

4) 主要理論에 대한 考察

徐靈胎는 醫學理論의 方面에 있어서 造詣가 깊어 많은 研究가 있었는데 그 主要理論을 다음과 같은 方面으로 紹介하겠다.

(1) 命門元氣論

徐靈胎는 命門元氣를 重視하여 命門과 元氣의 關係로부터 命門元氣가 人體에 대한 重要性을 研究 分析하였다. 그는 命門의 元陰元陽은 陰陽이 相貫하고 水火가 相濟하여 生化之氣가 永遠히 쉬지 않으므로 生氣 또는 元氣라 稱하고 元氣는 先天에 根源하고 命門에 根本을 두어 元陰元陽의 作用을 兼備한다고 認識하였다³³⁾. 《雜病源·命門》에서 命門을 定義하여 이르기를 “命門之義 腎有二枚 以診法言 左者爲腎, 右者爲命門 故右尺診相火 左尺診腎水 以生氣言 則腎皆屬水 其眞火實居兩腎之間 卽經曰七節之旁 中有小心也.”라 하고 “命門爲元氣之根 眞火之宅 一陽居二陰之間 熏育之主 而五臟之陰氣 非此不能滋 五臟之陽氣 非此不能發”³⁴⁾이라 하여 《難經》의 左腎右命門說을 繼承하고 張景岳의 命門學說을 繼承 發展시켜 命門元氣論을 確立하였다.

徐靈胎는 臨床에서 診治를 施行할 때 반드시 元氣를 考慮하여 元氣를 保護하는 것을 強調하였는데 元氣의 存亡盛衰는 실제로 人體의 生死存亡의 關鍵이 되므로 元氣를 保護하는 것이 “醫家第一活人大義”³⁵⁾라고 하였다. 그는 病人의 各種 情況을 分析하여 《醫學源流論·元氣存亡論》에서 이르기를 “終身無病者 待元氣之自盡而死 此所謂終其天年者也 若元氣不傷 雖病甚不死 元氣或傷 雖病輕亦死 而其中又有辨焉 有先傷元氣而病者 此不可治者也 有因病而傷元氣者 此不可不預防者也 亦有因誤治而傷及元氣者 亦有元氣雖傷未甚 尚可保全之者 其等不一.”³⁶⁾이라 하였다. 따라서 醫師는 반드시 元氣를 상세히 살펴야 한다고 強調하여, “診病決死生者 不視病之輕重 而視元氣之存亡 則百不失一矣”³⁷⁾라고 指摘하였다.

33) 裘沛然 丁光迪 主編, 中醫各家學說,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2. p.644.

34) 清·徐靈胎 著, 林直清 校勘, 徐靈胎醫書全集(卷四), 臺北, 1969. p.151.

35) 清·徐靈胎 著, 上揭書, p.153.

36)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卷一), p.55.

이렇듯 元氣는 人體生命活動을 維持하는 內在된 動力으로 元氣가 衰하면 神氣가 衰하고 神氣가 衰하면 形體가 衰하므로 元氣를 診察하는 方法에 있어서 患者의 神氣를 觀察하는 것이 重要하니 이는 또한 元氣가 充盛하면 生氣가 充盛하고, 生氣가 充盛하면 神氣가 旺盛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神氣는 元氣의 반영으로 人體生命活動의 主要 象徴이며 元氣의 生理的이고 病理的인 活動이 밖으로 표현되는 現象이다. 그러므로 그는 《雜病源·命門》에서 “命門有生氣 卽陽和不息之機也 無生卽無命矣.”³⁷⁾라고 하고 또한 “至人之生氣 則無所不在 如臟腑有生氣 顏色有生氣 脈息有生氣 七竅有生氣 四肢有生氣 二便有生氣 生氣卽神氣 神自形生 何可不辨”³⁸⁾라고 하여 人身의 元氣는 命門에 根本하나 그 밖으로 드러나는 神氣는 現象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望形, 察色, 切脈, 聞聲등의 方法으로 元氣의 盛衰를 判斷할수 있음을 說明하였다.

元氣를 認識함에 있어서 徐는 元氣의 쓰임은 至極히 크고 元氣의 質은 至極히 微微하여 先天에서 얻어져서 人體의 壽命을 決定한다고 하였다. 《醫學源流論·元氣存亡論》에서 이르기를 “當其受生之時 已有定分焉 所謂定分者 元氣也 視之不見 求之不得 附于氣血之內 宰乎氣血之先”³⁹⁾라고 하여 人體의 生長老病의 生命過程이 元氣의 支配를 받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元氣와 生命의 관계에 대해서 薪과 火에 비유하여 “置薪于火 始燃尙微 漸久則烈 薪力既盡而火熄矣. 其有久暫之殊者 卽薪之堅脆異質也 故終身無病者 待元氣之自盡而死 此所謂終其天年者也.”⁴⁰⁾라 하여 元氣의 存亡이 生死를 決定함을 說明하였다. 또한 元氣와 五臟과의 關係에 대해서 五臟의 精氣와 元氣가 同一함을 強調하여 이르기를 “元氣雖自有所在 然實與臟腑相連屬者也”⁴¹⁾라 하고 “五臟有五臟之眞精 此元氣之分體者也 而其根本所在 卽道經所謂丹田 難經所謂命門 內經所謂七節之旁中有小心 陰陽闔壁存乎此 呼吸出入系乎此.”⁴²⁾라고 認識하였다.

元氣의 保全에 있어서 正常的인 건강한 사람은 陰平陽秘의 狀態를 維持하여 元氣가 損傷되지 않으나 疾病에 걸린 患者는 陰陽失調하여 元氣가 耗損되니 元氣를 保護하는 것이 疾病을 豫防하고 治療하는 關鍵이 된다. 그는 “若夫有疾病而保全之法何如 蓋元氣雖自有所在 然實與臟腑其連屬者也 寒熱攻補不得其道 則實其實而虛其虛 必有一臟大受其害 邪入于中而精不能續 則元氣無所附而傷矣 故人之一身 無處不宜謹護 而藥不可輕試也 若夫預防之道 惟上工能慮在病前 不使其勢已橫而莫救 使元氣克全 則自能托邪于外 若邪盛爲害 則乘元氣未動 與之背城而一決 勿使事後生悔 此神而明之之術也”⁴³⁾라고 하여 元氣를 保全하는 것이 補益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辨證施治하고 寒熱攻補를 마땅히 하여 實實虛虛의 誤를 범하지 않으면 臟腑와 精氣가 損傷을 받지 않아 元氣가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說明하였다.

37) 清·徐靈胎 著, 上揭書, p.55.

38)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卷四), p.153.

39) 清·徐靈胎 著, 上揭書, p.154.

40)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卷一), p.55.

41) 清·徐靈胎 著, 上揭書, p.55.

42) 清·徐靈胎 著, 上揭書, p.55

43) 清·徐靈胎 著, 上揭書, p.55.

44) 清·徐靈胎 著, 上揭書, p.55.

元氣를 培養하고 堅固하게 하는 方法에 대해서도 徐는 더욱 具體적으로 論하였는데, “衰者速培 猶恐不及 然必細審孰者已虧 孰者能益生氣 孰者能損生氣 孰者宜先攻病氣 以保生氣 孰者宜先固生氣 以御病氣”⁴⁵⁾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서 藥을 사용하여 生氣를 培養하고 補할 때 반드시 目的이 있어야 하며, 또한 가리는 것이 있어야 하며, 克伐劑를 절대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指摘하였다. “固生氣” 및 “攻病氣”할 때에는 標本 緩急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生氣를 고려하지 않으며 한갓 病氣만을 攻하면 元氣까지 같이 耗損되니 “病已愈而不久必死者 蓋邪氣雖去 而其人元氣與病俱亡”⁴⁶⁾한다고 하였다.⁴⁷⁾

以上에서 徐靈胎의 元氣에 대한 認識을 살펴보았는데 總結하면, 元氣는 人體의 生命活動을 營爲하게 하는 至極히 精微로운 物質로 先天으로부터 賦與받아 定分이 있으며, 所藏處는 命門에 根本을 두나 五臟의 精氣와 相通하여 無所不在하고, 元氣의 判斷은 氣으로 드러나는 神氣를 살핍으로써 하고, 元氣의 存亡盛衰는 人身의 生死를 決定하며, 元氣를 保養하여 病邪를 排除할 것을 主張하였다.

(2) 辨病辨證論

徐靈胎는 病과 症의 概念에 대하여 比較的 體系的으로 分析하고 辨病과 辨證의 關係를 論述하여 診斷課程中の 辨病과 辨證의 複雜한 要因을 提示하였다.

《傷寒論》의 辨證施治의 大法으로부터 歷代醫家들의 各種 새로운 理論들이 辨證의 內容과 施治의 方法을 더욱 豊富하게 하였다. 徐靈胎는 그러한 것들의 長點을 널리 取하고 長期間의 實踐과 刻苦의 研究를 하여 辨證施治의 規律에 心得함이 있어 晩年の 著作인 《醫學源流論》과 《蘭臺軌範》에서 比較的 體系的으로 辨病과 辨證을 結合하여 辨證을 한층더 發展시켰다.

그는 病과 症의 概念이 같지 않다고 했으니 病이라는 것은 一定한 發生原因이 있고 一定한 發展趨勢가 있으며 一定한 演變課程이 있고 一定한 症候의 出現이 있는 것이며, 症은 疾病의 特定症狀의 表現으로 疾病의 어떠한 段階에서의 病機나 어떠한 病因에 依해서 發生하는 特殊類型의 病機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辨證을 할 때에는 우선 病因을 잘 分別해야하며 다음에는 病機를 잘 살피고 마지막으로 病名을 識別해야 한다. 이는 辨證을 함과 동시에 반드시 辨病을 해야하고 施治에 앞서 반드시 識病해야 하는 것이다. 《蘭臺軌範·序》에서 “欲治病者 必先識病之名 能識病名 而後求其病之所由生 又當辨其生之因各不同 而病狀所由異 然後考其治之之法 一病必有主方 一方必有主藥”⁴⁸⁾라고 하여 ‘識病之名’을 매우 重視하여 病은 症을 包括하고 症의 出現與否를 決定한다고 하였다. 또한 《醫學源流論·知病必先知證論》에서 이르기를 “後之醫者 病之總名 亦不能知 安能于一病之中 辨明衆症之淵源”⁴⁹⁾이라 하여 識病의 重要性을 主張

45)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卷四), p.154.

46)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卷一), p.70.

47) 裘沛然 主編, 中醫歷代各家學說,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4.p.284.

48)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 p.8.

49) 清·徐靈胎 著, 上揭書, p.109.

하였으니 識病하지 못하고 辨證만을 한다면 辨證자체도 正確하고 심도 있지 않아 治法과 用藥에 있어서도 切中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病과 症의 關係에 대해서 이르기를 “凡一病必有數症 有病同症異者 有症同病異者 有症與病相因者 有症與病不相因者 蓋合之即曰病 分之即曰症”⁵⁰⁾이라 하여 病과 症사이에 네가지 相互關係가 있다고 하여 病證의 概念을 명확히 하였다. 具體적인 例를들어 說明하면 數症이 合하면 病이 되고 나누면 症이 되니 《醫學源流論·病症不同論》에서 “一病必有數症 與太陽傷風是病也 其惡風身熱自汗頭痛是症也”⁵¹⁾라 하였고, 《醫學源流論·藥誤不即死論》에서 “凡一病有一病之名 如中風總名也 其類有偏枯痿痺風痲歷節之殊 而諸證之中 又各有數症 各有定名 各有主方 又如水腫總名也 其類有皮水正水石水風水之殊 而諸證又各有數症 各有定名 各有主方 凡病皆然”⁵²⁾라 하니 이는 病同症異한 경우에 屬하는 것이며, 《醫學源流論·病同因別論》에서 이르기를 “如同一身熱 有風有寒 有痰有食 有陰虛火動 有鬱怒憂思 勞怯蟲疰”⁵³⁾라 하여 同一한 身熱의 症이 있어도 原因에 따라 여러 가지 病이 있으니 이는 症同病異한 경우에 該當한다. 또한 “如身熱而腹痛 即腹痛又爲一症 而腹痛之因 又復不同 有與身熱相合者 有與身熱各別者 與感寒而身熱 其腹亦因寒而痛 此相合者 與身熱爲寒 其腹痛又爲傷食 則各別者也”⁵⁴⁾라고 하여 病證이 相因한 경우와 病證이 不相因한 경우에 대하여 說明하여 臨床에서 辨證施治를 할 때 病과 證의 分別을 分明히 할 것을 主張하였다.

臨床에서의 病情의 變化는 매우 複雜하여 辨病과 辨證을 더욱 精密히 해야하는데 그 여부에 따라 治療의 關鍵이 달려 있으니 病證에 대한 病因의 重要性을 論하여 《醫學源流論·知病必先知證論》에서 “每證究其緣由 詳其情狀 辨其異同 審其眞僞 然後遍考方書本草 詳求古人治法 一遇其證 應手輒愈”⁵⁵⁾라 하였고, 《醫學源流論·病同因別論》에서는 “若不問其本病之何因 及兼病之何因 而徒曰某病以某方治之 其偶中者 則投之或愈 再以治他人 則不且不愈 而反增病”⁵⁶⁾이라 하였다.

病證을 分辨함에 있어서 病同人異論을 主張하였는데 이는 同一病으로 同一症이 있어도 사람의 體質이 같지 않기 때문에 用藥施治도 당연히 달리 해야한다고 하여 《醫學源流論·病同人異論》에서 “天下有同此一病 而治此則效 治彼則不效 且不惟不效 而反有大害者 何也 則以病同人而人異也 夫七情六淫之感不殊 而受感之人各殊 或氣體有強弱 質性有陰陽 生長有南北 性情有剛柔 筋骨有堅脆 肢體有逸勞 年力有老少 奉養有膏粱藜藿之殊 心境有憂勞和樂之別 更加天時有寒暖之不同 受病有深淺之各異 一概施治 則病情雖中 而於人之氣體 迥于相反 則利害亦相反矣.”⁵⁷⁾라

50) 清·徐靈胎 著, 上揭書, p.109.

51) 淸·徐靈胎 著, 上揭書, p.68.

52) 清·徐靈胎 著, 上揭書, p.80

53) 清·徐靈胎 著, 上揭書, P.68.

54) 清·徐靈胎 著, 上揭書, p.69.

55) 清·徐靈胎 著, 上揭書, p.110.

56) 清·徐靈胎 著, 上揭書, p.69.

57) 清·徐靈胎 著, 上揭書, p.67.

고 하였다.

以上에서와 같이 徐는 比較的 詳細히 病과 症에 대하여 分析하여 辨病과 辨證을 論述하였는데 그 主要理論은 病症不同論, 知病必先知證論, 病同因別論, 病同人異論 등으로 辨證을 함에 반드시 辨病의 觀點에서 하여 여러 가지 複雜한 病因들을 잘 살필 것을 主張하였다.

(3) 汗宜輕清 不用溫燥論

劉河間이 火熱論을 主張한 以來로 溫病에 대한 研究가 활발해지면서 數百年間 發展을 하여 清代에 이르러 溫病學派가 形盛되었고 徐靈胎는 이러한 時代의인 背景에서 發汗不用溫燥論을 主張하였다.

解表發汗法에 있어서 溫病學家들은 辛涼清透의 法을 善用하여 津液을 保護함에 注意하였는데 徐는 이러한 理論을 일찍이 闡發하였으니 《醫學源流論·發汗不用燥藥論》에서 “發表所以開其毛孔 令邪從汗出也 當用至輕至淡 芳香清冽之品 使邪氣緩緩從皮毛透出 無犯中焦 無傷津液 仲景麻黃桂枝等湯是也 然猶恐其營中陰氣 爲風火所煽而消耗於內 不能滋潤和澤 以託邪於外 於是于啜粥 以助胃氣 以益津液 此服桂枝湯之良法”⁵⁸⁾이라 하여 汗法에 대하여 詳細히 分析하여 發汗劑는 마땅히 清淡하고 芳香清冽한 藥을 使用하여 肺氣를 清開하고 腠理를 宣透하여 邪氣를 밖으로 나가게 하되 中焦를 범하지 않도록하고 津液을 傷하지 않게 하는 것을 重視하였다. 그리고 仲景의 麻黃湯과 桂枝湯은 그러한 部類의 方劑로 한편으로는 上焦를 열어주고 한편으로는 津液을 滋하여 營分을 調和하는 것이라 하였다.

溫燥한 藥들은 外感寒濕에는 쓸 수 있으나 外感熱病에는 마땅하지 않으니 “溫燥之藥 即使其人津液不虧 內旣爲風火所熬 又復爲燥藥所燥 則汗從何生 汗不能生 則邪無所附而出 不且不出邪氣 反爲燥藥鼓動 益復橫肆 與正氣相亂 邪火四布 津液益傷”⁵⁹⁾이라 하여 溫燥한 藥을 쓰면 病邪가 나가지 않을 뿐만아니라 津液을 더욱 損傷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傷寒約編》에서 溫熱病을 治療하는 加減黑膏湯을 보면 荊芥, 連翹, 蟬衣, 薄荷등의 輕清宣透한 藥으로 疏熱外泄하게 하고 生地黃, 貝母등의 藥으로 養津存陰하게 하여 透邪와 護正의 意味를 重視하였다. 透邪는 肺氣를 輕開하게 하여 辛涼하고 輕透한 藥物을 써서 腠理를 열어 肌腠에 鬱滯된 熱邪를 자연스럽게 外泄하는 것으로 吳鞠通의 “治上焦如雨 非輕不舉”의 觀點과 符合하고 護正은 津液을 더하여 養陰하는 法이니 이는 葉天士가 主張한 “救陰不在血 而在津與汗”의 觀點과 同一한 것으로 그의 ‘發汗不用燥藥論’은 溫病가들의 特徵과 符合되는 徐의 觀點으로 重要한 것이라 하겠다.

(4) 運氣不足憑說

《素問》중에서 七篇(66篇~72篇)은 運氣學說을 詳細히 記載하여 大氣運動의 變化規律을 상세히 觀察하여 多年間의 氣候變化와 流行疾病과의 關係에 대하여 分析하였다. 金元時代에는 運

58) 清·徐靈胎 著, 上揭書, p.101.

59) 清·徐靈胎 著, 上揭書, p.101.

氣學說중에서 疾病流行規律과 관계있는 內容이 적지 않은 醫家들의 注意를 끌어 이에 運氣學說은 重視되어 왔다. 淸初에 이르러서도 運氣學說은 衰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도리어 더욱 廣範圍하게 引用되어 流行熱病에 대한 解析뿐만이 아니라 病機를 闡述하는데도 쓰이고 古籍을 注釋하고 심지어는 기타의 학문을 研究하는 手段으로 사용되어 基礎理論의 核心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徐靈胎는 當時의 지나친 學風에 反對하여 運氣不足憑說을 提示하였다.

그는 《醫學源流論·司天運氣論》에서 그러한 當時의 觀點을 批判하여 이르기를 “當時聖人不過言天地之氣 運行旋轉如此耳 至于人之得病 則豈能一一與之盡合 一歲之中 不許有一人生他病乎 故內經治歲氣勝復 亦不分所以得病之因 總之見病治病”⁶⁰⁾이라고 하여 運氣學說은 天地의 氣運이 運行하여 變化함에 따라 거기에 應하는 人身과의 關係로 疾病의 大綱을 判斷하는 것이지 사람이 걸리는 모든 疾病과 相合하지는 않고 또한 歲氣의 影響속에서도 다른 疾病이 發生할 수 있으니 歲氣에만 依支하여 用藥을 決定하는 것은 主客이 顛倒된 것으로 實際와는 거리가 멀다 하여 ‘見病治病’을 要點으로 삼았다.

그러나, 運氣學說에 대하여 全面的으로 不信하는 것은 아니라 반드시 배워서 參考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蓋司天運氣之說 黃帝不過言天人相應之理 如此其應驗先于候脈”⁶¹⁾라고 하여 天人相應의 理致로는 可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運氣學說에 대하여 當時의 醫家들이 盲目的으로 追從하여 依支함을 批判하고 排斥하여 ‘欺人之學’, ‘耳食之學’이라 하여 《內經》의 本意와는 거리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運氣의 道에 대해서 神秘하다고 여기지 않았고 一般 사람들이 運氣의 道를 알지 못하다고 하여 玄秘한 說이라고 曲解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凡運氣之道 言其深者 聖人有所不能知 及施之實用 則平正通達 人人易效”⁶²⁾라고 하여 徐의 運氣學說에 대한 態도와 評價는 그의 實用的인 學風을 반영하여 다른 尊經崇古의인 醫家들과는 差를 알 수 있다.

以上과 같이 徐靈胎는 運氣不足憑說을 主張하여 實際와 聯關된 天人相應의 理致로서의 運氣學說은 認定하였으나 당시에 일부 醫家들이 盲目的으로 運氣學說을 追從하는 弊端을 指摘하였다.

(5) 藥有專能 性同用異說

藥物의 歸經에 관한 說의 由來는 이미 오래되고 많은 醫學家들은 이 歸經說에 依하여 藥物의 功效를 解析하였다. 이러한 歸經說의 基礎는 實際로 藥物의 特殊效能上에 있어서 建立되었으니 假令 麻黃은 解表發汗, 宣肺平喘, 利水消腫등의 作用을 가지고 있는데 그 作用은 肺의 功能과 相近하여 肺經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本草學的인 變化發展은 醫學의 다른 分野와 마찬가지로 上古時代에는 비교적 素朴하였고 宋代以後에 날로 蕃盛하여 많은 思想들이 나왔으니 《神農本草經》의 記載內容은 藥物의 效用을 客觀的이고 簡略하게 記述하였으나 宋代以後로는

60) 淸·徐靈胎 著, 上揭書, p.94.

61) 淸·徐靈胎 著, 上揭書, p.93.

62) 淸·徐靈胎 著, 上揭書, p.94.

認識이 深化되고 論理的인 思考方式이 介入되어 本草學의 理論은 더욱 豊富해져 升降浮沈, 氣味厚薄, 性同用異, 引經報使, 四季用藥등의 理論이 있어 그중에 藥物歸經의 理論은 後世에 比較的 큰 影響을 미쳐 臨床醫家들의 用藥規則이 되었다. 藥物作用의 一般的인 歸納으로 認定되는 歸經說은 일정한 道理가 있지만 또한 不完備한 部分도 있으니 너무 執着하여 使用하면 藥物의 正確한 應用에 障礙가 된다. 이에 대하여 徐靈胎는 ‘藥有專能 性同用異說’을 提示하였다.

徐靈胎는 《醫學源流論·治病不必分經絡臟腑論》에서 “蓋人之氣血 無所不通 而藥性之寒熱溫涼 有毒無毒 其性亦一定不移 入於人身 其功能亦無所不到 豈有其藥止入某經之理 如蓼氏之類 無所不補 砒鴆之類 無所不毒 並不端於一處也”⁶³⁾라고 하여 人身의 氣血의 運行은 如環無端하여 周身을 貫通하고 藥性의 寒熱溫涼과 有毒無毒의 性質은 一定하여 人體에 들어와서는 또한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補하게 되면 모두 補하고 毒이 되면 모두 毒이 되어 그 作用이 某經에만 局限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補藥과 毒藥이 이와 같으니 其他의 理氣, 活血, 解毒, 消痰등의 藥도 또한 그러할 것이니 “以某藥爲能治某經之病則可 以某藥爲獨治某經則不可 謂某經之病 當用某藥則可 謂某藥不復入他經則不可 故不知經絡而用藥 其失也泛 必無捷效 執經絡而用藥 其失也泥 反能致害”⁶⁴⁾라고 하여 經絡臟腑의 歸經理論에 執着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歸經理論이 어느 정도는 藥物의 功能을 반영하여 醫家들이 用藥함에 있어서 따를수 있지만 다만 완전히 좋은 것만은 아니고 심지어는 理論上에 明白한 缺點이 있으니 歸經理論에 의해 用藥하는 것보다는 直接的으로 藥物의 專能을 把握하는 것이 더욱 適切한 것이라 하였다.

그는 藥性의 專長을 重要視하여 많은 藥物의 作用을 固有의 理論으로 把握하여 쓰기가 어렵다고 認識하였으니 《醫學源流論·藥性專長論》에서 이르기를 “藥之治病 有可解者 有不可解者 如性熱能治寒 性燥能治濕 芳香則通氣 滋潤則生津 此可解者也 如同一發散也 而桂枝則散太陽之邪 柴胡則散少陽之邪 同一滋陰也 而麥冬滋肺之陰 生地則滋腎之陰 同一解毒也 而雄黃則解蛇蟲之毒 甘草則解飲食之毒 已有不可盡解者 至如鱉甲之消痞塊 使君子之殺蛔虫 赤小豆之消膚腫 棗仁生服不眠熱服多眠 白鶴花之不腐肉而腐骨 則尤不可解者 此乃藥性之專長”⁶⁵⁾라고 하여 藥物의 專能을 強調하였다. 그의 이러한 藥物專能說은 자신의 研究에도 많은 影響을 미쳤으니 《傷寒論》을 研究함에 있어서 다른 醫家들은 理法의 研究를 置重한 반면 徐靈胎는 方藥의 運用規律을 가장 重視하였다.

一味의 藥이 종종 多種의 作用을 가지고 있으며 同類의 藥들이 各各의 專能이 있으니 이에 대하여 徐는 藥物의 性同用異說을 提示하였다. 그는 《醫學源流論·藥石性同用異論》에서 이르기를 “一藥有一藥之性情功效 其藥能治某病 古方中用之以治某病 此顯而易見者 然一藥不止一方用之 他方用之亦效 何也 蓋藥之功用 不止一端 在此方則取其此長 在彼方則取其彼長 眞知其功效之實 自能曲中病情而得其力”⁶⁶⁾라고 하여 一藥이 여러 作用이 있다 하였고, 또한 “又同一熱藥而附子之熱與乾姜之熱 迥乎不同 同一寒藥 而石膏之寒與黃連之寒 迥乎不同 一或誤用 禍害立至

63) 清·徐靈胎 著, 上揭書, p.58.

64) 清·徐靈胎 著, 上揭書, p.59.

65) 清·徐靈胎 著, 上揭書, p.87.

66) 清·徐靈胎 著, 上揭書, P.80.

蓋古人用藥之法 並不專取其寒熱溫涼補瀉之性也 或取其氣 或取其味 或取其色 或取其形 或取其所生之方 或取嗜好之偏 其藥似與病情之寒熱溫涼補瀉若不相關 而投之反有能效”⁶⁷⁾라고 하여 약물의 性同用異한 現狀을 分析하여 古人의 用藥은 藥의 寒熱溫涼補瀉의 性質을 利用하였을 뿐만 아니라 多角的인 眼目으로 藥物을 理解하여 그 特殊效能을 發揮한다고 하였다.

藥物의 專能說을 基礎하여 藥物의 性同用異論을 提示하였는데 그는 또한 藥性이 달라도 同用할수 있다고 하여 古方중에 攻補와 寒熱을 併用한 原理를 說明하였다. 그는 《醫學源流論·攻補寒熱同用論》에서 이르기를 “虛症宜補 實證宜瀉 盡人而知之者 然或人虛而症實 如弱體之人 冒風傷食之類 或人實而症虛 如強壯之人 勞倦亡陽之類 或有人本不虛而邪深難出 又有人已極虛而外邪尙伏 種種不動 若純用補則邪氣益固 純用攻則正氣隨脫 此病未愈彼病益深 古方所以有攻補同用之法 疑之者曰 兩藥異性 一水同煎 使其相制 則攻者不功 補者不補 不如勿服 若或兩藥不相制分途而往 則或反補其所當攻 攻其所當補 則不惟無益 而反有害 是不可不慮也 此正不然 蓋藥之性 各盡其能 攻者必攻強 補者必補弱 猶掘坎于地 水從高處流下 必先盈坎而後進 必不反向高處流也 如大黃與人蔘同用 大黃自能逐去堅積 決不反傷正氣 人蔘自能充益正氣 決不反補邪氣 蓋古人制方之法 分經別藏 有神明之道焉 如瘧疾之小柴胡湯 症之寒熱往來 乃邪在少陽 木邪侮土 中宮無主 故寒熱無定 于是用柴胡以驅少陽之邪 柴胡必不犯脾胃 用人蔘以建中宮之氣 人蔘必不入肝膽 則少陽之邪自去 而中土之氣自旺 二藥各歸本經也 如桂枝湯 桂枝走衛以祛風 芍藥走營以止汗 亦各歸本經也 是以而推 無不盡然 試以神農本草諸藥主治之說 細求之自無不得矣 凡寒熱兼用之法 亦同此義”⁶⁸⁾라고 하여 藥性이 달라도 古人의 制方成法에 充實하면 同用할수 있음을 밝혔다.

以上에서와 같이 徐靈胎는 藥物은 各各의 專能이 있음을 主張하여 歸經理論을 不完備하다고 하였으며 藥物의 作用에 있어서 性同用異함과 性異用同함이 있다고 하였다.

(6) 師法古方論

辨證과 製方의 法度는 臨床治療에서의 중요한 部分으로 徐는 이미 辨證과 辨病을 重視하였고 또한 立法製方의 規律에 대해서도 깊은 研究를 하여 古方의 法을 따를 것을 提示하였다.

法이라는 것은 方劑組合의 法則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病機에 根據하여 治療原則을 세우는 것과 治療原則에 부합하는 藥物을 配伍하는 것, 그리고 藥物을 加減하는 法을 이룸이니 立法이 正確하고 製方이 正確하며 選藥이 精密하면 治療效果도 매우 좋다고 인식하였다. 《醫學源流論·古方加減論》에서 이르기를 “古人製方之義 微妙精詳 不可思議 蓋其審察病情 辨別經絡 參考藥性 斟酌輕重 其於所治之病 不爽毫髮 故不必有奇品異術 而沉痾艱險之疾 投之輒有能效”⁶⁹⁾라고 하여 古方의 立法과 製方의 精密함을 말하였다. 藥物配伍의 法에 있어서는 《醫學源流論·方藥離合論》중에 이르기를 “方之與藥 似合而實離 得天地之氣 成一物之性 各有功能 可以變易血氣 以除疾病 此藥之力也 然草木之性 與人殊體 入人腸胃 何以能如人之所欲 以致其效 聖人爲之

67) 清·徐靈胎 著, 上揭書, P.81.

68) 清·徐靈胎 著, 上揭書, P.103.

69) 清·徐靈胎 著, 上揭書, P.75.

製方以調劑之 或用以專攻 或用以兼治 或相輔者 或相反者 或相用者 或相制者 故方之既成 能使藥各全其性 亦能使藥各失其性 操縱之法 有大權焉 此方之妙也”⁷⁰⁾라고 하여 藥物配伍法을 專攻, 兼治, 相輔, 相反, 相用, 相制의 6種 方法으로 歸結하였다. 古方을 使用함에 반드시 症候를 상세히 살펴서 古方의 主治症과 相合하면 加減할 必要가 없고, 다 合하지 않고 한, 두개가 不合하면 마땅히 加減할 것이니 《醫學源流論·執方治病論》에서 “欲用古方 必先審病者所患之症 悉與古方前所陳列之症皆合 更檢方中所用之藥 無一不與所現之症相合 然後施用 否則必須加減 無可加減則別擇一方 斷不可道聽塗說 聞某方可以治某病 不論其因之異同 症之出入 而冒昧施治 雖所用悉本於古方 而害益大矣”⁷¹⁾라고 하였다.

病機와 方劑, 藥物加減이 모두 一法에 合하니 “分觀之而無藥不切于病情 合觀之而無方不本于古法”⁷²⁾이라 하여 一定한 法이 없이 症狀만을 按하여 用藥하면 비록 藥은 切中하였으나 立方의 法度가 없으니 ‘有藥無方’이 되고 立方은 되었으나 適切한 加減을 못하여 一二味の 藥이 病과 相關이 없으면 ‘有方無藥’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仲景의 立方을 가장 宗旨로 여겨 古法이라 稱하고 仲景의 方을 높게 評價하여 《醫學源流論·方劑古今論》에서 “昔者 聖人之製方也 推藥理之本源 識藥性之專能 察氣味之從逆 審臟腑之好惡 合君臣之配偶 而又探索病源 推求經絡 其思遠 其義精 味不過三四 而其用變化不窮 聖人之智 眞與天地同體 非人之心思所能及也 上古至今 千聖相傳 無敢失墜 至張仲景先生 復申明用法”⁷³⁾이라 하였고 “其傷寒論金匱要略 集千聖之大成 以承先而啓後 萬世不能出其範圍 此之爲古方 與內經並垂不朽者”⁷⁴⁾라고 하여 仲景의 方을 古方이라 하고 매우 極讚하였다.

以上에서와 같이 徐靈胎는 張仲景의 《傷寒論》과 《金匱要略》을 至極히 讚賞하여 方劑의 運用에 있어서 仲景의 法을 古法이라 하고 仲景의 立方을 古方이라 稱하였고, 立法製方과 藥物의 配伍加減은 正確하고 嚴密한 仲景의 法度를 따를 것을 主張하였다.

(7) 以方類症 治傷寒

徐靈胎는 仲景의 《傷寒論》에 造詣가 깊어 많은 研究를 하여 ‘以方類症’의 方法으로 《傷寒論》을 解釋하였다.

歷代로 많은 醫家들이 《傷寒論》을 研究함에 두 가지의 部類가 있었으니 하나는 王叔和의 編纂體例를 贊成하여 原書의 基礎위에 各各의 方證의 意味를 研究하는 部類가 있고 다른 하나는 王叔和의 編纂體例에 滿足하지 못하고 다시 새로이 組合하고 編次하여 方證을 研究하는 部類가 있으니 두 部類는 모두 辨證論治의 原理와 規律을 提示함을 目的으로 하였다. 明代 以來로 方有執이 錯簡說을 提示하여 《傷寒論》의 條文을 再構成하고 不同한 角度에서 不同한 方

70) 清·徐靈胎 著, 上揭書, P.75.

71) 清·徐靈胎 著, 上揭書, p.85.

72) 清·徐靈胎 著, 上揭書, p.75.

73) 清·徐靈胎 著, 上揭書, p.77.

74) 清·徐靈胎 著, 上揭書, p.77.

法으로 學者들이 《傷寒論》을 研究하였다. 例를 들어 尤在涇 등은 治法으로 立論하였고, 陳念祖 등은 六經審證으로 立論하였으며, 汪琥 등은 經絡分經으로 論述하였고, 柯韻伯 등은 方證으로 立論하였다. 徐靈胎는 柯韻伯의 뒤를 이어 以方類證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다른 점은 柯氏는 經을 나누어 方으로 證을 命名하였는데, 徐는 經을 나누지 않고 方에 따라 證을 分類하였으니, 柯韻伯과 더불어 두 사람은 前後로 뛰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徐靈胎는 《傷寒類方·序》에서 “後人各生議論 每成一書 必前後更易數條 互相訾議 各是其說 愈更愈亂 終無定論 不知此書非仲景依經立方之書 乃救誤之書也 其自序云 ‘傷天橫之莫救 所以尋求古訓 博採衆方’ 蓋因誤治之後 變症錯雜 必無循經現症之理 當時著書 亦不過隨證立方 本無一定之次序也”⁷⁵⁾라고 하여 明代以後로 많은 醫家들이 그 編次方法을 가지고 爭論이 그치지 않음을 指摘하였다. 그래서 그는 仲景의 辨證論治와 製方法度를 重視하여 處方用藥의 研究에 힘을 기울였으니 “蓋方之治病有定 而病之變遷無定 知其一定之治 隨其病之千變萬化而應用不爽 此從流溯源之法 病無遁形矣 至于用藥則各有條理 解肌發汗 攻邪散痞 逐水驅寒 溫中除熱 皆有主方 其加減輕重 又各有法度 不可分毫假借”⁷⁶⁾라고 하였다.

그는 《傷寒論》 113方を 桂枝湯 麻黃湯 葛根湯 柴胡湯 梔子湯 承氣湯 瀉心湯 白虎湯 五苓散 四逆湯 理中湯 雜方 등 12가지로 歸納하고, 雜方を 제외한 11가지 主方の 아래에는 관련된 條文을 配列하여 論하고, 다시 같은 種類의 處方들을 羅列하였다. 가령 理中湯類에서는 《傷寒論》에서 理中湯과 關聯된 條文을 主方인 理中湯의 아래에 羅列하고 그 다음에 眞武湯 附子湯 甘草附子湯 桂枝去桂加白朮湯 茯苓桂枝白朮甘草湯 芍藥甘草附子湯 桂枝人參湯 등의 8방을 次例로 羅列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傷寒論》 諸方を 分類하고, 같은 종류의 諸方に 대해서 隨證加減하여 變化시킴으로써 더욱 깊게 研究하였다. 이는 바로 그가 말한 “其方之精思妙用 又復一一注明 條分而縷析之 隨以論中用此方之證 列于方後 而更發明其所以然之故 使讀者于病情藥性 一目顯然 不論從何經來 從何經去 而見證施治 與仲景之意無不吻合”⁷⁷⁾이라 한 것과 같다.

以上에서와 같이 徐靈胎는 《傷寒論》을 研究함에 ‘以方類症’의 方法으로 하였으니 徐의 《傷寒類方》은 臨床 施治에 實際로 意味가 있어 尊經考訂에만 拘碍되는 자와는 다른 바가 있으므로 後世醫家들에게 重視를 받았다.

Ⅲ. 結 論

清代 尊經學派 醫家인 徐大椿에 대하여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75)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大星文化社, 서울, p.586.

76) 上揭書, p.586.

77) 上揭書, p.587.

1. 徐大椿은 清代 1693年(康熙 32年)에 江蘇省 吳江縣에서 出生하여 1771年(乾隆 36年)까지 살았다. 清代의 著名한 醫學家로서 博學多才하여 天文, 水利, 音樂, 詩文등에 能하였고 黃老의 學과 易學을 깊이 研究하였으며 특히 醫學에 더욱 精密하여 平生동안 著述이 매우 많았다.
2. 徐大椿의 著述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뉘보면 자신의 醫學著作, 他人의 醫書를 批評한 著作, 非醫學的인 著作이다. 醫學著作으로는 一般的으로 알려진 《徐氏醫書八種》과 《醫略六書》가 主要著作이고, 他人의 醫書를 批評한 著作으로는 《評定外科正宗》과 《徐評臨証指南》이 있으며, 非醫學的인 著作으로는 《洄溪道情》, 《樂府傳聲》, 《道德經注》, 《陰符經注》가 있다.
3. 《徐氏醫書八種》은 《難經經釋》2卷, 《神農本草經百種錄》1卷, 《醫貫砭》2卷, 《醫學原流論》2卷, 《傷寒類方》1卷, 《蘭臺軌範》8卷, 《慎疾芻言》1卷, 《洄溪醫案》1卷으로 이루어져 있다.
4. 《醫略六書》는 《內經要略》1卷(《內經詮釋》이라고도 함), 《脈訣啓悟》1卷(歌訣部를 제외한 부분을 《洄溪脈學》이라고 하고 《經絡診視圖》가 첨부됨), 《傷寒約編》8卷(《舌鑑圖》가 첨부됨), 《藥性節用》1卷, 《雜病證治》9卷, 《女科指要》6卷(《女科治驗》이 첨부됨)으로 이루어져 있다.
5. 徐大椿은 元氣를 重要視하였는데 元氣는 人體의 生命活動을 營爲하게 하는 至極히 精微로운 物質로 先天으로부터 賦與받아 定分이 있으며, 所藏處는 命門에 根本을 두나 五臟의 精氣와 相通하여 無所不在하고, 元氣의 判斷은 겉으로 드러나는 神氣를 살핍으로써 하고, 元氣의 存亡盛衰는 人身의 生死를 決定하며, 元氣를 保養하여 病邪를 排除할 것을 主張하였다.
6. 徐大椿은 比較的 詳細히 病과 症에 대하여 分析하여 辨病과 辨證을 論述하였는데 그 主要理論은 病症不同論, 知病必先知證論, 病同因別論, 病同人異論등으로 辨證을 함에 반드시 辨病의 觀點으로 하여 여러 가지 複雜한 病因들을 잘 살필 것을 主張하였다.
7. 清代에 이르러 溫病學派가 形成되었고 徐大椿은 發汗不用溫燥論을 主張하여 溫病家들과 見解를 같이 하였다.
8. 徐大椿은 運氣不足憑說을 主張하여 實際와 聯關된 天人相應의 理致로서의 運氣學說은 認定하였으나 當時에 일부 醫家들이 盲目的으로 運氣學說을 追從하는 弊端을 指摘하였다.
9. 徐大椿은 藥物은 各各의 專能이 있음을 主張하여 歸經理論을 不完備하다고 하였으며 藥物의

作用에 있어서 性同用異함과 性異用同함이 있다고 하였다

10. 徐大椿은 張仲景의 《傷寒論》과 《金匱要略》을 지극히 推仰하여 方劑의 運用에 있어서 仲景의 法을 古法이라 하고 仲景의 立方을 古方이라 稱하여 立法製方과 藥物의 配伍加減은 正確하고 嚴密한 仲景의 法度를 따를 것을 主張하였다.

11. 徐大椿은 《傷寒論》에 造詣가 깊어 《傷寒論》을 研究함에 ‘以方類症’의 方法으로 할 것을 主張하였으니 徐大椿의 《傷寒類方》은 實際의 臨床 施治에 意味가 있어 後世醫家들에게 重視를 받았다.

參 考 文 獻

1. 裘沛然 主編, 中醫歷代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2. 裘沛然 丁光迪 主編,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3.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4
4. 清·徐靈胎 著, 林直清 校勘, 臺北, 徐靈胎醫書全集, 1969.
5. 姜春華 編著, 歷代中醫學家評析,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6. 嚴世芸 編著, 中醫學術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
7. 李 雲 主編, 中醫人名辭典,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88.
8. 清·徐靈胎 撰, 徐大椿醫書全集(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9. 何時希 著, 中國歷代醫家傳錄(中),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10. 金東辰 編著, 中國醫史三字經,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91.
11. 李華 碩士學位論文, 趙獻可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1998.
12.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卷53), 서울, 大星文化社, 1995.